

43. 영적 투쟁의 실상을 보여줌(2)

2012. 10. 2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첫부분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영적 투쟁의 현장의 실상을 확인하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단10:12~14]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14 이제 내가 말일에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이나 오늘의 제목이 영적 투쟁의 현장과 실상을 보여줌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10장의 계시가 주어진 때와 그때 다니엘의 신체 상태를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세상에 있는 전쟁이기보다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 그렇게 해야지요. 어떤 주석가는 다니엘 10장에서처럼 영적 투쟁을 선명하게 보여준 곳이 성경의 다른 곳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 10장 짧은 장이지만 엄청난 사건을 간단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이런 상태를 기록한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단10:12,13을 읽어봅시다.

[단10:12,13]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보내심을 받은 것은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을 바사국 군이 21 일 동안 막았습니다. 이 말이 참 묘하지요. 여기 군이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나타난 표현대로는 바사 국왕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으로 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 군이라는 말은 “사르”인데 “수령, 장관 지배자”등의 뜻입니다. 또 가브리엘이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왕들은 “멜레크”인데 일반적으로 독립 왕국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사국 군은 바사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사의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배후의 영적 세력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단이거나 그 부하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바사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미를 본 다니엘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절대적 개입과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꼈을 테니까요.

2.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우기 위하여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하려고 일단 바사 왕을 먼저 방문했는데, 사단이 바사 왕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한 일을 결정하도록 충동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답: 예, 바로 그렇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태를 직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브리엘을 보내서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미 조서를 내려서 결정한 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사 왕이 고레스지요. 그는 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는 조서를 내리고 성전과 아마도 성읍도 재건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고레스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사44:26~28) 그래서 그는 다니엘 1장에 있는 대로 다니엘을 만나보고 다니엘에 읽어준 이사야에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한 예언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유대인들 해방령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3년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간 유대인들에 대하여 참조하는 상소문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잦았다는 것을 에스라는 에스라 4장에 몇 몇 예를 들어 한데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이 사정을 잘 몰라서 오해하기 아주 쉬운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올린 유대인들의 복구 활동을 방해하는 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적어놓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 기록된 것을 역사적 연대별 차례로 읽으면 오해하게 되어 있지요. 그건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사단이 와서 고레스를 충동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사단과 가브리엘이 고레스를 가운데 두고 힘겨루기를 한 것인데, 아마도 능력면으로 사단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역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3. 목사님은 왜 사단이 가브리엘보다 더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예, 사단은 루시퍼지요. 이는 이사야서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덮는 그룹이라고 에스겔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 중에 말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여호와 회의에 참석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비거리라고 할 정도였지요. 이사야 14:12~14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에 대하여서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도 덮는 그룹으로서 천사들을 지휘하던 천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브리엘을 문천사라고 말합니다. 루시퍼와 가브리엘은 아마도 덮는 그룹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덮는 그룹은 성소의 언약궤를 덮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시립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인 듯합니다. 아무튼 10장에 기록된 사실을 보아서 이런 결론은 자연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루시

퍼를 미가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니엘에게 온 것이지요.

4. 그러면 천사들도 각각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더 힘센 천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세계처럼?

답: 성경에 기록된 상태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힘센 천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10:1, 18:2, 21에 기록이 있고, 5:2에는 힘 있는 천사라고 했는데 원문은 힘센 천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시퍼는 아주 힘센 천사였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말씀하나님과 겨루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는 겸손하고 올바른 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아무튼 가브리엘은 바사국 군으로 군림한 루시퍼를 미가엘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이제 루시퍼와 미가엘이 고레스를 가운데 두고 감동의 힘내기를 하는 셈이 됐지요.

5. 결국은 루시퍼가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겠습니까.

답: 그렇지요. 가브리엘은 미가엘에게 맡기고 다니엘에게로 와서 계시를 보여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은 사람의 어떤 결정의 배후에 하나님과 사단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싸움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적 사건과 역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결정하고 시행하는 줄 알지만 그 배후에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각각 감동하며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도 애청자들의 마음에 이 두 세력이 역사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마음에도 역사합니다. 요13:2을 읽어보시지요.

[요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감사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모든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라고 하셨지요.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도록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알도록 생각을 주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베드로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돌아가실 사실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아주 예수님을 위하여 간절한 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행동은 제자로서는 정말 할 만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지요. 순간적으로 베드로를 주장한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세력의 중심이 루시퍼 곧 사단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력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선한 천사들이 다 그렇지요.

6. 참으로 엄청난 전쟁이군요. 정말 큰 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답: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 십장에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10:13)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가엘을 하늘 천사의 여러 군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카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소위 일곱 천사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성경에는 일곱 수호신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천사장이라고 직접 지칭한 분은 오직 미가엘뿐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이나 다른 천사의 이름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천사장은 아닙니다. 천사의 장은 하나뿐이지요.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으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 토빗서에는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외경인지 위경인지 예녹서에 우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동등한 천사장의 무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미가엘만 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재림교회의 이해는 미가엘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지요.

7. 미가엘이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이 성경으로 증명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짐작하는 것입니까?

답: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기독교가 미가엘을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용납하는 여부는 그분들에게 맡기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된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미가엘의 이름이 다섯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세 번, 유다서에 한 번, 계시록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장면이 모두 투쟁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사단과 투쟁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대결하여 투쟁하는 분이 바로 미가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미가엘이 용, 곧 사단과 싸우는 사건을 기록한 계12:1~9을 읽어보면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용, 여자가 남자를 낳았을 때 그 남자를 삼키려고 하는 용.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자, 용, 곧 옛 뱀, 여자의 아들. 이것은 창3:15에 등장하는 인물과 꼭 같습니다.(그렇군요.) 그런데 창세기 3:15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울 것이라고 했지요. 뱀, 곧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싸웁니다. 계12:17에도 용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용, 곧 사단이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시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계12:7에 용과 싸우는 미가엘은 여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모두 사단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골2:15) 성경의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 미가엘이 그리스도의 별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때 그에게 대답한 형식의 이름이지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핀 대로 루시퍼는 자신을 지극히 높은 신자와 비기라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루시퍼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것이지요. 그 이름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싸워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입니다. 다니엘

서에 “너희 군”이라고 한 것이 “사르”라고 했지요. 이 말은 여호수아 5:14에 여호와와 그의 군대 장관 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미가엘이라는 칭호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와 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시24:7~10)

8. 목사님 설명은 너무나 분명한군요. 애청자들께서도 성경적으로 이해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바사국 군을 미가엘에게 맡기고 다니엘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미가엘이 바사국 군, 즉 루시퍼를 고레스에게서 떠나게 했는지요?

답: 확실히 그랬다고 믿습니다. 루시퍼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 없지요. 그것은 마치 도끼가 그것을 쓰는 사람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이나 같은 일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사10:15]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일반이로다.”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다니엘서에는 그냥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21절) 일단 루시퍼는 고레스를 떠났고 다음 왕들에 대하여 계속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후에 사단의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눅4: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했지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 바사 왕들이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소를 들어줬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반복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에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13절)라고 하여 가브리엘이 계속적으로 고레스를 이어 바사왕이 되는 사람들을 권고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개역성경의 번역과 원문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 주석책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구약주석가 델리취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개역 성경과는 달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미가엘의 도움 이후에 해당되는 문장의 끝에 기록되고 있는데, 곧 가브리엘이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긴 다음 바사 왕 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Delitzsch). 이는 특별히 ‘바사국 왕들’이란 복수형의 표현을 통해 그러한 영향력이 당시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전역사속에서 지속적으로 유대 민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루시퍼는 고레스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했고 미가엘의 주장으로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바사에 정변이 일어나면서 유대인의 대적들이 방해 공작을 했지요. 그때도 가브리엘은 바사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직무를 감당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9. 인간들의 활동 배후에 이런 영적 존재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네요. 이런 투쟁을 거치며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은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셔야 겠습니다.

답: 성경을 읽으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10:19~21을 읽어봅시다.

[단10:19~21]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 하옵소서 20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아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 21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뿐이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격려합니다. 다니엘이 계시 에 들어가면서 힘도 빠지고 죽은 것 같이 되었잖아요. 천사가 그에게 힘을 더하며 평안을 선언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가브리엘의 말을 듣는데, 11장부터 계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은 12장까지의 서론격인데, 11장 12장의 내용이 큰 전쟁에 대한 것인데, 물론 세상 역사와 관련된 예언이지만 그 예언된 세상 역사의 배후에 이런 영적 투쟁이 있다는 것을 먼저 자세히 보여준 것입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성경 전체에 걸친 내용을 뜻할 수도 있고 가브리엘이 보여줄 사실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계시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배후에 영적 존재들의 엄청난 투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진리를 따라 굴복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레스를 충동하고 바사 왕들을 충동하듯이 모든 개개인들을 감동시켜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아도록 보여준 계시가 바로 다니엘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모든 일에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는 이는 오직 미가엘이시라고 밝히면서 10장을 마치는데,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짝 귀뜸을 합니다. 곧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사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는 운을 띄운 것이지요. 이 모든 역사적 진행에 영적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10.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지요. 애청자들께서 오늘도 영적 투쟁에서 반드시 진리 편에 서서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역사와 인간 활동의 배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올바른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도록 성령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